

2009년 6월 21일 하나님의 음성 권윤애

= 권윤애

※6월 21일(7년 대 환란을 통해 궁금함을 기도, 너무 두렵고 저의 죄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강한 진동과 함께 내가 말씀해주겠다. 기도 후 기록하라는 감동에 의해 기록하게 됨)

28일 통곡의 회개기도- 그동안 해주고 싶어하셨던 말씀을 해 주시게 됨.

◎무서운 대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불쌍한 영혼들은 지옥에 갈 것을 알기에 안절부절하며 서로 헐뜯으며 부둥켜안는구나. 그때는 이미 늦어 나를 불러도 난 돌아보지 않는다. 꼭 잡고 절대 놓지 말아라. 사고가 나도 안절벨트를 매고 손잡이를 꼭 잡으면 살 수 있듯이 너희는 나를 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벨트를 꼭 매도 풀릴 것이며 손잡이를 잡는 일 또한 힘들 것이다. 그래도 잡아야 살 수 있다. 줄면 죽는 것이다. 자면 죽는 것이다. 절대 신앙의 잠에서 깨어 나를 맞이하라. 선생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 내가 지시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운전할 수도 없게 하면 다 죽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니 애가 탄다. 내가 선생을 통해 지시할 것이다. 따라오지 않는 자는 사망의 죽음의 길, 따라오는 자는 영생의 길. 서로 의지하며 해야지 살 수 있다. 서로 밀어내고 헐뜯으면 죽는 것이다. 환란은 시작되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어느 때인지 모르는 자는 잠만 자고 있다. 사랑해서 다 부르는 데 보지도 않고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간다. 환란, 심판, 죽음, 거듭남, 부활, 깨끗하게 하기 위함, 우리 이곳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자. 곧 데리러 갈 것이다. 두려워 말고 깨어 맞이하라. 준비하라 이곳은 완전한 곳이다. 준비 없이는 올 수 없다. 회개도 더 해야 한다. 회개가 다 된 줄 알고 하지 않는 자가 많다. 깨어 맞이하라 준비하라. <새벽5시50분경에 받은 말씀>

◎병들어 가는 지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 겪었던 아픈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신다.

세상은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다 악함으로 인해 더러워진 나의 작품. 누구보다 이 더러움을 보고 슬퍼하는 건 나다. 뜻있게 만들었으나 너무 부패한 땅. 아이처럼 나를 찾는 자를 나는 찾는다. 때 묻지 않는 그런 자를 나는 찾는다. 부패한 땅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사랑 끈을 놓지 않는 자를 나는 찾는다. 나의 마음을 위로할 자를 나는 찾는다. 더러움을 깨끗게 할 자를 나는 찾는다. 이 더러움을 깨끗게 할 자 그 누구랴. 고통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 놓치지 않고 싶었던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을 이리도 모를까. 아픔을 뒤로한 채 이제는 마지막 날이 다가와 사랑하는 자와 더 좋고 이상세계를 이루려 가려 한다. 내가 간 뒤 울자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어 기다를 수도 기회를 줄 수도 없어.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이 아니면 이제 나는 오지 않는다. 우리 사랑했던 그 날을 잊지마라. 내가 함께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떠나는 자는 후회한다. 나를 보아라. 때가 오리니 나를 맞이하라. 아직도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지금이라도 깨어 듣는 자는 복된 자다. 노력하면 내가 주리니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가 줄 수 없다. 기다리는 자는 맞이할 수 있나니 기다리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다. 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이 모든 말은 사랑이다. 사랑을 회복하여라. 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을 회복하여라. 잃어버린 자 사랑을 회복하여라. 다시 찾아라. 사랑하면 모든 걸 줄 수 있듯이 나도 사랑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주리라. 사랑해 다 주고 싶어도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알까? 안다면 받았겠지. 모를 거야. 모르니까 나를 떠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살아야지. 겪었던 아픔 슬픔 고통 다 씻어주고 행복만 기쁨으로 살아야지. 내가 다 사랑해. 내가 다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아는 자는 몇 없네. 선생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며 아픔도 고통도 다 겪었어. 아픔 고통 내가 다 알지. 옆에서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나를 때리고 나를 아프게 했어. 그 뒤에 내가 있었는데 나를 아프게 했어. 슬픔 고통 가운데도 감사한 마음을 받아 나의 마음을 위로했어. 선생은 목숨을 잃어도 감사, 모든걸 가져가도 감사. 아픔도 감사, 어디서도 감사. 사랑해서 감사. 감격해서 감사. 그같이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같이 한자는 나의 영을 주리라. 내가 그 아픔 다 씻겨 주니 육신은 아파도 행복하지. 육신이 괴로워도 행복하지. 어떤 행복이 행복인지 알기에 내가 함께 하리. 내가 함께 해주리. 나와 같이 한 자는 참 행복을 얻으리.

<사랑의 역사>

내가 떠나면 울지 말고

내가 왔을 때 맞이하자

사랑하는 자들 다 찾으먼

나는 떠나리라

나의 사랑과 통할 수 있게 기도하라

나의 마음과 통할 수 있게 기도해야한다

몸에 전율이 흐르는 자는 나를 느끼고 있다

사랑이 통한 것이다

매일 느끼고 매일 통하여야

내가 왔을 때 나를 맞을 수 있다

사랑의 잠에서 깨어나라

잠든 사랑을 깨어라

잠언>

--기도중에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시며 비밀을 알려 주시고 가셨다...

귀있는 자도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1. 사랑하는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의 잠을 자는 것이다.

사랑이 잠을 자면 사랑이 통할 수 없다.

2. 새벽을 깨워라. 새벽에 내가 갈 것이다.

새벽에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그날 나를 맞을 수 없다

3.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4. 새벽은 내가 역사하는 시간이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 졸며 기도하는 자

그 날에도 잠을 잠으로 맞이할 수 없다. 시간은 귀하다. 새벽시간은 더 귀하다.

-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금같이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새벽시간은 평소 시간보다 더

귀하니 얼마나 더 귀한지 깨달아야 한다.

5. 새벽을 성공해야 기도를 이룰 수 있다. 모든 걸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신앙의 잠, 사랑의 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